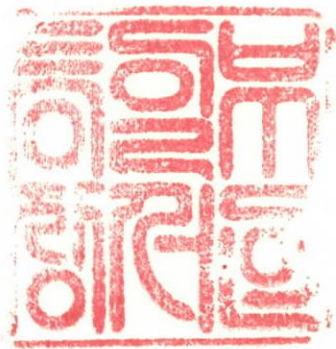


초등학교 5~6학년

# 열리는 통일 신나는 미래



통일교육원

이 책은 통일/북한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통일교육원에서 발간한 참고자료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널리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I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 1

1. 남북 분단의 현실 / 3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 4
  - (1) 7·4 남북 공동 성명 / 5
  - (2)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 6
3. 남북 정상 회담의 의미 / 8
  - (1)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 10
  - (2)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 11
  - (3)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 11
4. 남북 정상 회담 이후의 변화와 협력 / 12
  - (1) 남북한 당국자 회담 개최 / 12
  - (2)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공사 / 13
  - (3) 다양한 만남과 협력의 기회 확대 / 14
5. 다른 분단국들의 만남과 협력 / 15
  - (1) 동독과 서독 / 15
  - (2) 중국과 대만 / 16

## II

##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 19

1. 북한의 경제와 산업 / 21
  - (1) 북한의 경제 / 22
  - (2) 에너지 사정 / 23
  - (3) 식량 사정 / 24
2.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 25
3. 북한 사람들의 직장 생활 / 28
4. 북한 사람들의 가정 생활 / 29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생활 / 30
6. 북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 / 32
7. 북한의 명절 / 33
8. 북한의 교통 수단 / 35
9.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 37
10. 북한 어린이들의 과외 활동 / 41
11.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활동 / 43
  - (1) 일요일에는 교회나 절, 성당에 다닐까요? / 43
  - (2) 북한 어린이들도 TV를 즐겨보나요? / 44
  - (3) 북한 어린이들도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나요? / 45

### Ⅲ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 47

1.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 49
2.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 50
3.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 51

### Ⅳ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 53

1. 주인정신을 가져요 / 55
2. 강한 정신력을 키워요 / 56
3.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요 / 56
4. 더 넓은 세계를 내다보는 눈을 키워요 / 57



# I

##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1. 남북 분단의 현실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3. 남북 정상 회담의 의미
4. 남북 정상 회담 이후의 변화와 협력
5. 다른 분단국들의 만남과 협력





## I. 남북이 함께 만드는 새 천년 새 역사

### 1. 남북 분단의 현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힘들었던 35년간의 일제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 광복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은 잠시 뿐이었고 우리민족은 남북 분단의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한반도의 분단은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벗어난 직후 우리의 의지와는 달리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결정되었습니다. 해방이 되자마자 북한 지역은 소련군이, 남한 지역은 미군이 점령하였으



8·15 해방으로 기뻐하는 우리 민족



6·25 전쟁의 비극

며 그로 인해 38선이 그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민족 내부적으로 단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도 분단의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독립 투쟁 과정에서나 정부

수립 과정에서 우리 민족이 단합하지 못하고 이념적으로 분열됨으로써 외세가 우리의 허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결과가 되었고, 이것도 국토 분단의 비극을 가져온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1950년 6월 25일, 소련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선전 포고 없이 남한에 대해 기습 남침을 하였고 이로 인해 같은 민족끼리 죽고 죽이는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년간의 전쟁이 계속되다가 1953년에 휴전 협정이 체결된 후 지금까지 분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 2. 분단 이후의 남북한

분단된 지 어느덧 반세기 이상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이들은 민족 분단의 아픔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남북 분단 상태가 오래 계속되면서 우리나라는 많은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남북의 자원을 잘 활용하는 균형 있는 국토 개발이나 대외적으

로 민족적 역량을 발휘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또한 과도한 군사비 지출은 국가경제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 고통을 줄이려는 노력은 그동안 남북한 사이에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 (1) 7·4 남북 공동 성명

1972년 7월 4일 오전 10시,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은 남과 북이 분단이후 처음으로 서로 합의한 문서였습니다.

「7·4 남북 공동 성명」은 우리나라와 북한이 다른 나라에 의존하거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통일 문제를 해결한다는 ‘자주의 원칙’, 무력행사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평화의 원칙’, 그리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단결을 해야 한다는 ‘민족대단결의 원칙’ 등 통일을 위한 3개의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이 합의에 따라 1972년 10월부터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려 남북 간 공식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지만, 북측의 주한 미군 철수 주장과 1975년 베트남의 공산화 등 국제 정세의 변화에 영향을 받아 제대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명의 원칙들은 그 후로도 남북 사이의 통일을 위한 노력의 기본 정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2)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남북 기본 합의서」 체결

1990년 9월~1992년 9월까지 8차례에 걸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남북 기본 합의서」(정식 명칭 :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

었습니다.

「남북 기본 합의서」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합의한 3개의 원칙을 다시 확인하면서, △남북 화해 △남북 불가침 △남북 교류·협력을 실천하기 위한 내용들을 약속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남과 북이 서로 협력하여 분단으로 생긴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노력들을 담고 있어서, 그대로만 하면 사실상 통일이 된다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동독과 서독이 1972년 기본 조약의 체결과 함께 양국 간의 교류가 많아지고 서로 협력하게 된 것을 생각하면서, 남북 사이의 관계도 매우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1993년 3월 갑자기 '핵확산 금지 조약'에서 탈퇴함으로써 남북 간에 긴장이 다시 높아졌고, 이 합의서 내용은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이 합의서는 남북한이 통일로 가기 위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에 관한 합의이고, 서로에게 신뢰를 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간에 서로 믿지 못하고 전쟁의 공포에 싸여 산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입니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도 남북한이 함께 만든 「남북 기본 합의서」를 현실적으로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약속은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믿음은 서로 간의 잦은 만남과 실천으로 키울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지 어느덧 반 세기, 그동안 남과 북은 긴장 속에서도 통일을 위해 노력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뚜렷한 결실을 맺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00년에 열린 남북 정상 회담은 통일을 위한 하나의 커다란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 클릭 알고 싶어요

#### ○ 남북 기본 합의서 서문의 주요 내용

- 남과 북은 7·4 남북 공동 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 원칙을 재확인함.
- 정치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함.
-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함.
-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함.
-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함.

### 3. 남북 정상 회담의 의미

2000년 6월 13일 오전 10시 25분, 김대중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 순안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공항에 직접 마중을 나왔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계단을 내려 온 김대중 대통령은 기다리고 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반갑게 두 손을 잡았습니다. 분단 55년 만에 남북 정상이 처음 만나는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지켜본 온 국민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모두 환호하였습니다.

다음은 남북의 두 정상이 첫 만남에서 나눈 대화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환영 나와 놀라고 감사합니다. 평생 북녘 땅을 밟지 못할 줄 알았는데 환영해 줘서 감개무량하고 감사합니다. 7천만 민족의 대화를 위해 서울과 평양의 날씨도 화창합니다. 민족적인 경사를 축하하는 것 같습니다. 성공을 예언하는 것 같습니다.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중 나온 시민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줄임) ...

**김정일 국방위원장** : 자랑을 앞세우지 않고 섭섭지 않게 해 드리겠습니다. (줄임) 동방예의지국을 자랑하고 싶어서 인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 대통령의 용감한 방북에 대해 인민들이 용감하게 뛰쳐

나왔습니다. (줄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방북을 지지하고 환영하는 지 똑똑히 보여 드리겠습니다. 장관들도 김 대통령과 동참해 힘든, 두려운, 무서운 길을 오셨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 나는 처음부터 겁이 없었습니다. (웃음) 김 위원장이 공항까지 나온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성심을 갖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거리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나올 줄 몰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 그저께 방송을 통해 연못동에서 영빈관까지의 (김대통령의) 행로를 알려 주니까 여자들이 명절 때처럼 고운 옷들을 입고 나왔습니다. 2000년 6월 13일은 역사에 당당히 기록될 날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 이제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갑시다.



남북 정상 회담

(1) 한반도에 평화의 기운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남북 정상 회담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을 줄이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혔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재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휴전선은 말 그대로 전쟁을 쉬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북한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아가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과 북이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평화롭게 살기 위한 것입니다.



6·15 남북 공동 선언문



(2) 남북이 함께 잘 사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서로 협력하면 모두 잘 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앞선 기술과 자본이 북한의 풍부한 자원과 만난다면 북한 사람들이 식량이 없어 밥을 굶는 일은 없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장사가 더 잘될 것입니다.

(3)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으로 흩어진 가족이 약 1,000만 명이나 됩니다. 이들은 불행하게도 50년 이상의 기나긴 세월을 헤어져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약 69만 명에 이릅니다.



반세기만에 만난 어머니와 아들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 형제자매들과 헤어져 50여 년이 지나도록 만날 수 없다고 생각

해 보면, 이산가족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상상이 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산가족이 만나는 것은 헤어진 가족의 한을 풀고,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좋은 분위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생각해 보기

반세기 넘게 분단된 한반도에서 남북 정상 회담과 같은 만남과 협력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 4. 남북 정상 회담 이후의 변화와 협력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 관계는 과거에는 기대하기 힘들었던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평화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교류와 협력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 (1) 남북한 당국자 회담 개최

남북이 분단된 지 반세기 동안 남과 북의 당국자 만남은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1990년대 초에 회담이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지만, 제대로 실천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남북한 사이에 산더미같이 쌓여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기회를 만들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은 석 달여 만에 세 번의 남북 장관급 회담을 열어 6·15 남북 공동 선언의 내용을 실천하기 위

해 노력하였습니다. 남북한 사이에 주고받아야 할 서신과 문서, 연락해야 할 일들을 위해 만들었던 남북 연락 사무소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과 북의 국방 장관이 만나 끊어진 경의선을 연결하기 위해 비무장지대의 지뢰를 제거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남북 적십자 회담도 이산가족의 상봉 행사, 서신 교환, 면회소 설치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북한과 교역하고 투자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기 위한 만남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일들이 아무 문제없이 순조롭게 풀리기는 어렵겠지만 서로 간에 믿음을 쌓아 나가면 언젠가는 좋은 결실들을 맺을 것으로 보입니다.

## (2) 경의선 및 동해선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

경의선은 서울에서 개성과 평양을 지나 신의주까지 연결된 철로인데 남북이 분단되기 전에는 자유롭게 오고 갔습니다. 이제 이 끊어진 철로를 잇는 일과 문산과 개성 사이의 도로를 잇는 일에 남북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의선 '염원의 열차' 출발

최근에는 동해선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는 공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의선과 동해선이 연결되면 한반도의 '생활 지도'가 바뀌어 질 것이며 우리 어린이들도 바로 만주, 시베리아를 거쳐 유럽까지 기차를 타고 다녀올 수 있게됩니다.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프랑스 파리까지도 갈 수 있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롭게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를 이용하면 바다나 중국을 통해 북한을 가지 않아도 되므로, 여러 가지 비용이 줄어들어 경제 교류도 더욱 활발해질 것이고,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에 사람들의 왕래도 많아질 것입니다.

### (3) 다양한 만남과 협력의 기회 확대

남북 정상 회담 이후 남북한 사이에는 사람의 왕래도 부쩍 늘었습니다. 신문사와 방송사 사장들이 북한을 방문하였고, 북한의 조선 국립 교향악단이 서울에서 우리 교향악단과 함께 공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개성에 우리가 투자하는 공단을 설립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00년 제24회 시드니 올림픽에서는 우리 선수들과 북한 선수들이 함께 입장하여 전 세계 사람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습니다. 우리 선수나 북한 선수가 경기를 벌일 때에는, 남과 북이 하나가 되어 응원하는 모습을 보고서 남북한 사람들은 역시 '한민족'이라는 것을 진하게 느꼈습니다.

## 5. 다른 분단국들의 만남과 협력

통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진 것 같은 베를린 장벽도 사실은 끊임없는 교류와 협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 (1) 동독과 서독

독일도 1990년에 통일되기 전까지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인 서독과 공산 진영인 동독으로 분단되어 있었습니다.

동·서독은 1970년 3월 브란트 서독 총리와 슈토프 동독 각료 회의 의장이 첫 정상 회담을 하였습니다. 이후 통행 조약과 기본 조약이 체결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동·서독 사이에 교류가 눈에 띄게 활발해졌으며 문화 교류도 추진되었습니다.



베를린장벽을 부수는 독일 국민들

동독 측이 큰 관심을 보인 것은 서독과의 경제 교역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서로 간에 긴장이 줄어들고 1989년에는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더니 1990년 10월 3일에 통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2000년에는 독일의 한 신문사가 통일 10주년을 맞아 독일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독일이 통일을 잘 했고 그로 인해 많은 이익이 생겼다고 대다수의 독일인들이 대답했습니다. 통일을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한 실제로 좋은 효과를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 (2) 중국과 대만

중국과 대만 사이에는 중국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고, 대만 정부는 '대만의 독자성 인정'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서로 정치적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과 대만은 경제와 사회 교류면에서 활발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1988~99년 사이에 중국을 방문한 대만 사람은 약 1,750만 명이며, 반대로 대만을 방문한 중국 사람은 약 5만 명이고 교류 항목도 5,000여 가지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중국과 대만은 분단되어 있지만 사실상 통일된 나라나 마찬가지라고 느낄 만큼 큰 불편 없이 살아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도 이렇게 자유롭게 오고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와야 하겠습니다.



###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이 독일과 같이 평화적으로 통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단계들을 거쳐야하며,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  
은 무엇일까요?.







## Ⅱ

#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1. 북한의 경제와 산업
2.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3. 북한 사람들의 직장 생활
4. 북한 사람들의 가정 생활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생활
6. 북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
7. 북한의 명절
8. 북한의 교통 수단
9.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10. 북한 어린이들의 과외 활동
11.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활동



## II. 북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 1. 북한의 경제와 산업

1990년대 이후 북한은 내부 경제 자원이 부족해지면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습니다. 배급 부족이 심해지면서 주민 생활이 크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나라들의 도움으로 점차 나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북한에 관한 일반사항

북한이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나라 이름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북한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의 관계가 아닌 특수한 관계”라고 합의를 보았습니다(남북 기본 합의서). 이는 같은 민족이 분단되어 있는 현실에서 유래합니다.

북한이 사용하는 국기는 깃발의 가운데에 넓고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위로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깃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형의 별이 있습니다. 국가도 있는데 제목은 ‘애국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애국가와는 가사와 곡조가 전혀 다른 노래입니다. 북한의 국화는 ‘목란’입니다.

### (1) 북한의 경제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허덕이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북한은 공산주의 경제 원리에 따라서 국가가 중앙 차원에서 경제를 통제합니다. 개인의 재산 소유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 소득과 저축·가정용품·일용소비품 등 생활에 필요한, 극히 일부분의 범위 내에서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자립 경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힘으로 책임지고 경제 건설을 한다는 '자력更生'의 방침에 따라서 모든 물자 생산도 스스로 해결하고 기술 개발도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화폐들

그러다 보니 다른 나라와 무역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얻지 못하고 있으며 선진 기술도 배우지 못하여 경제가 뒤쳐지고 있습니다.

셋째, 북한은 중공업 분야와 군사 분야를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결국 주민생활에 필요한 경공업·농업·사회 시설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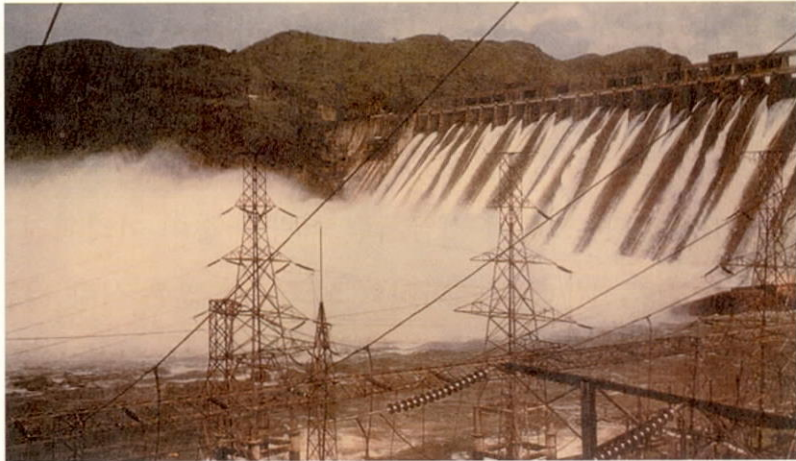
## (2) 에너지 사정

1990년대 들어오면서 북한의 에너지 공급량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공업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중공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에너지 부족 사태는 산업 생산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에너지의 대부분을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북한의 석탄 생산량이 계속 줄어들어 에너지 사정을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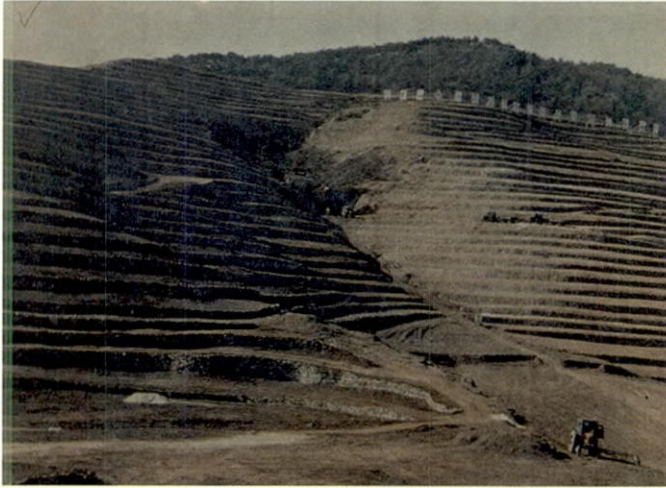
전력 생산량도 199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북한의 전력 생산에서 40%를 차지하는 화력발



수력발전소

전소가 석탄 생산의 감소로 인해 제대로 가동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 (3) 식량 사정



북한의 다락밭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것은 1995년 북한이 심한 홍수를 겪고 나서, 국제기구에 처음으로 식량 지원을 요청하면서 부터입니다.

북한은 소위 '주체 농업'에 입각해 좁은 땅에 씨앗을 많이 심어 많은 곡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농토를 무리하게 사용하다 보니 땅의 힘이 점차 약해져서, 곡식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산 중턱까지 '다락밭'이라는 것을 만들어 곡식을 심었으나, 홍수가 나면서 이 곡식들이 모두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식량 사정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1995년부터 우리나라와 외국에서 많은 식량 지원과 각종 농업기술에 관한 협력을 받았으며, 자체적으로도 녹색 혁명을 강조하면서 농업생산 기술을 혁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세계 다른 나라에서 북한에 보내는 비료와 곡식 등은 북한 주민들의 식량 문제를 덜어주는 데 큰 도움

이 되고 있습니다.



###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는 북한의 경제난을 돕기 위해서 인도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2. 북한 사람들의 의식주 생활

북한 주민들이 평소에 입는 옷은 1990년대 초까지는 배급을 통해 공급되었으나, 1995년 이후부터는 공급이 거의 중단됨에 따라 옷을 스스로 만들어 입거나 장마당에서 비싸게 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들의 교복도 2년에 한번 정도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생일에 선물로 받았으나 최근에는 사서 입고 있습니다.

1980년대 들어 다양한 양복·양장 차림으로 변화하고 유행도 타는 모습을 보

이고 있다고 하지만, 이것은 주로 평양 등 대도시 주민들에 해당되는 것



양장 차림의 북한 여성



북한의 대표적 음식인 냉면을 먹는 모습

이고 그 밖의 지역에 사는 일반 주민들은 대체로 잠바나 스웨터·인민복·작업복 차림입니다.

한편, 북한에는 지역별로 유명한 음식들이 있습니다. 평안도는 냉면이 유명합니다. 함경

도는 창란젓·명란젓·명태순대·명태식혜 등 명태를 이용한 음식을 자랑합니다. 황해도는 녹두묵채·보쌈김치·새우찜·김치순두부 등이 유명하며, 강원도의 자랑은 금강산 송이를 이용한 요리입니다.

북한은 옛날부터 밭농사 중심이어서 주식으로 옥수수를 많이 먹는데 그대로 찌 먹는 것은 아니고 옥수수를 재료로 개발한 여러가지 음식을



북한의 일반 아파트



북한의 단독주택



먹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감자를 재료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정해져 있는 단독 주택이나 아파트를 국가로부터 배정받아 살고 있습니다.

대도시 중간 간부급 이상의 주민들은 보통 방 2~3칸 짜리 아파트를, 일반 주민들은 연립 주택을, 그리고 농민들은 보통 방 1~2칸의 농촌 단독 주택을 배정받아 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집을 개인이 소유할 수는 없고 이용만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민들은 계층과 신분에 따라 정해진 단독 주택이나 연립 주택, 아파트 등을 임대 형식으로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의 의식주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 3. 북한 사람들의 직장 생활



피복공장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들

남한 사람들의 직업 선택은 본인의 자유의사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북한 주민들의 직업 선택은 당과 행정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직장 배치는 본인의 희망·소질·능력과 출신

성분도 감안하여 국가의 필요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번 배치를 받으면 직장을 옮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이 받는 임금(북한 사람들은 이를 '생활비'라고 말합니다.)은 계층별로 차별하여 지급합니다. 같은 직종이면 임금이 비슷하므로 열심히 일할 동기가 생기지 않아, 노동자들의 창의성이 발휘되지 못하고 생산성도 떨어집니다.



####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의 직장 생활 중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통일된 나라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직장 생활이 바뀌면 좋을까요?

#### 4. 북한 사람들의 가정 생활

북한은 공산주의 이념에 알맞은 새로운 가족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가족 제도를 변형시켰습니다. 여성들의 사회적 해방과 남녀 평등권의 실현을 추구한다며, 여성들도 직장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아기들은 탁아소에 맡깁니다. 저녁 시간이 되면 온 가족이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어린이들은 학교 선생님이 내준 숙제를 하기도 하고 집안일을 돕기도 합니다.



북한 상류가정의 거실

북한 주민들은 흔히 “사람이 살려면 오장육부가 있어야 하듯이 가정에도 ‘5장 6기’가 있어야 한다”고 하며 이를 갖추는 것을 가장 큰 소망으로 여깁니다. 5장이란 이불장·양복장·책장·신발장·찬장이고, 6기란 TV 수상기·냉동기·세탁기·재봉기·사진기·선풍기를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반 주민들은 ‘2장 3기’ 정도만을 갖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의 가정 생활에서 같은 점과 다른 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 5. 북한 사람들의 여가 생활



여가를 즐기는 평양 시민

북한 사람들의 하루 일과는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끝나지만 30분 전에 미리 출근하여 노동신문이나 당의 지시문을 읽어야 합니다.

일과 후에는 '작업총화'라 하여 하루 동안 한 일을 반성하고 직장별로

정치 학습을 받고 오후 7~8시에 퇴근합니다. 그러므로 평일에는 여가 시간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휴일이나 일과 후에는 여가 생활을 하는데 개인적인 취미나 소질에 따르기보다는 집단으로 음악, 무용, 연극 등을 관람하며, 직장이나 지역 단위에서는 문화 회관에서 간단한 체육이나 오락을 즐길 수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지역별로 휴일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 특색입니다. 그 이유는 안보상의 이유와 전력 사정이 안 좋아서 전기를 지역별로 분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평양은 일요일, 함경북도는 수요일, 함경남도는 목요일, 평안북도는 화요일, 강원도는 금요일을 휴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기

통일이 되면 북한 어린이들과 어떤 놀이를 함께하고 싶나요?

## 6. 북한 사람들의 언어 생활

우리나라와 북한은 분단되어 있는 동안 언어 표현 방식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북한에서는 우리의 '표준어'와는 달리 이른바 '문화어'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데, 문화어란 김일성 주석의 어록과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다듬은 말로서 북한식 표준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어의 중요한 특징은 외래어를 우리말로 바꾸어 쓰고, 이미 널리 쓰이는 한자어와 정치 용어·과학 기술 용어는 외래어라도 그대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자어인 견인선은 '끌배', 외래어인 볼펜은 '원주필', 많이 쓰이는 도시락도 '곽밥'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우리의 표준어와 다른

〈우리 나라와 북한의 언어 비교〉

우리 나라	북한	우리 나라	북한
남편	세대주	평양	논별
세탁소	빨래집	소풍	들모임
양계장	닭공장	오두막	마가리
종업원	접대원	보조개	오목샘
박치기	골반이	급식	급양사업
화장실	위생실	반찬	건건이
대중가요	군중가요	채소	남새
출입문	나들문	횡단보도	건늬길
육교	어김다리	냉면	찬국수
등교시간	상학시간	오누이	오랍누이

것들입니다. 또 괜찮다를 '일 없다'로 표현하는 등 말의 뜻이 우리와 다른 것도 있습니다.

또, 북한은 두음 법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여성'이라고 하는데 북한 사람들은 '녀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서로 의사소통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상태이며, 서로 자주 만나고 대화하다 보면 이런 차이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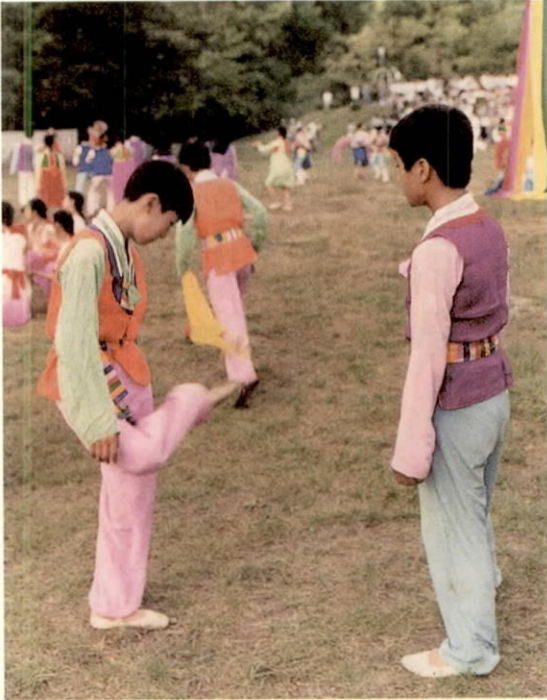
### 생각해 보기

남한에서도 지역에 따라 사투리가 다른 까닭은 무엇일까요? 그런데도 서로 다른 사투리를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7. 북한의 명절

북한에서 명절은 우리나라처럼 전통 민속 명절뿐 아니라, 국가 경축일, 국제 기념일까지 모두 말합니다. 설·단오·추석 등은 따로 '민속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북한에서 최대의 명절은 김일성·김정일의 생일입니다. 북한은 이런 날이 최대의 명절임을 알리기 위해 연휴로 하고 있으며, 김정일 생일인



명절날 제기차는 북한 어린이들

2월 16일부터 김일성 생일인 4월 15일까지 두 달 동안을 축제 기간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 4대 명절인 설, 단오, 한식, 추석은 1967년 7월 “봉건 잔재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김일성 주석의 지시로 없앴다가 1988년 이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날을 쉬면 ‘대휴’라 하여 그 전후의 일요일에 보충 노동을 해야 하므로, 완전한 공휴일이 아니고 반쪽 휴일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의 명절 생활은 왜 달라졌습니까?

통일이 되면 명절과 기념일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 8. 북한의 교통 수단

평양의 대중교통 수단은 지하철과 전동차가 중심을 이룹니다. 승용차는 많지 않습니다. 1980년대 말 이후 대규모의 국제 행사 개최에 따라 택시가 도시 교통의 한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그 수는 600~700대 정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북한의 대중교통 중에서 평양의 지하철은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교통수단으로서 '지하 궁전'이라고 부릅니다. 현재

까지 2개의 노선에 총 길이 34킬로미터이며, 지하 100~150미터에 건설되어 전쟁 등 유사시에는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궤도 전차 전동차는 우리나라에서는 사라졌는데 북한에는 평양의 만경대에서 사동 구역 송신 주차장에 이르는 제1노선 외에 2개의 노선이 더 있습니다.

버스는 시내 변두리에서 인근 교외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1989년에 등장한 여객선은 대동강을 다니면서 주민들의 출퇴근과 여행



평양의 지하철 및 안내판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는 평양 시민



버스를 타는 평양 시민

객 수송에 이용되고 있으며, 평양-남포를 오가는 유람선도 운항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기가 사는 지역을 벗어나 다른 지방에 갈 때에는 주로 기차를 많이 이용하는데 배차 시간이 잘 지켜지지 않아 믿을 수 있는 교통수단은 아닙니다. 최근 북한에는 석유 부족으로 목탄차까지 등장하고 있는데, 농촌이나 지방에서는 이를 대중교통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차량 이용이 쉽지 않으므로 가까운 곳을 다니기 위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5~20만 대의 자전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 생각해 보기

남한과 북한의 교통수단이 종류와 수량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 일까요?

## 9. 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

우리나라 학생들은 만 6살이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합니다. 북한에는 우리의 초등학교에 해당되는 인민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는 6년제이지만 인민학교



등교하는 인민학교 학생들

는 4년제로 운영되며, 4학년 졸업 후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전원 고등 중학교에 진학합니다.

인민학교 건물은 대부분 60~70년대에 건축되어 매우 낡았고, 이후에는 자재 부족 때문에 더 짓지 못하여 교실이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학교의 사정에 따라 오전반·오후반으로 나누어 2부제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북한의 학생들은 아침 7시에 집 주변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행진하면서 등교하고, 오후 4~5시 사이에 역시 집단으로 행진하면서 하교합니다. 하교 후에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거나 집안에서 일을 돕기도 하고 학교 숙제를 합니다.

도시의 인민학교에는 8~9개의 반이 있으나 농촌 등 지방에는 1~2개 반이 있습니다. 1개 반 학생 수는 보통 30~40명입니다.



인민학교 학생들의 수업 모습

인민학교에는 반장이나 주  
변은 없으며, 집단주의 정신  
을 키우기 위해서 2학년부터  
는 모두 '소년단'에 가입해  
야 합니다. 또한 '소년단'은  
학교의 생활에 필요한 규율  
통제를 맡고 있어 우리의 어

린이 회장단과 비슷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학생들이 결석을 거의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아프거나 사  
고처럼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모님이 직접 학교에 찾아가 알려 주거나 옆  
집 학생이 대신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결석을 거의 할 수 없  
는 이유 중의 하나는 날마다 하고 있는 과외 활동이나 총화 시간에 참석  
하지 못하면 다음 시간에 비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민학교에서의 예절교육은 '공산주의 도덕' 시간에 이루어지는데,  
이 시간에는 김일성·김정일 부자에 대한 절대적 충성심과 집단주의 윤  
리, 노동정신을 강조합니다.

인민학교 운동회는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2월 16일(김정일 생일)과 4  
월 15일(김일성 생일)에 전국 또는 도별 단위로 실시하고, 6월 6일(소년  
단 창립일)과 9월 5일('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 발표일)에 학교별로  
운동회를 실시합니다. 학교에서는 운동회나 예능 발표를 위해 한 두 달  
전부터 하루 1~2시간 정도 수업하고, 종일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인민학교 학생들도 시험을 봅니다. 시험은 1년에 두 번 보는데 시험과목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대원수님 어린 시절', '경애하는 영도자 김정일 장군님 어린 시절', 국어, 수학, 자연 등 5과목입니다. 성적표에는 1학년에서 4학년까지의 과목별 점수와 품행, 출석이 기록됩니다. 시험 방법은 주로 필기시험으로 주관식 문제에 논술형으로 답하는 형태와 단답식 형태가 있습니다.

인민학교의 방학은 여름 방학, 겨울 방학, 봄 방학이 있으며 4월 1일에 새 학년이 시작됩니다. 방학 동안에는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준 '방학 동안의 일정표'에 의해 방학 생활을 하는데, 일정표의 하루 생활 계획표를 보면 생활반(학급과 동네가 같은 6~7명으로 구성)끼리 학교에 모여 아침 달리기, 독보(독서), 오전 학습(방학 숙제)과 점심 식사 후 오후 학습을 하며, 매주 토요일은 소집일이라 하여 교원(선생님)에게 일주일 동안 한 숙제를 검사 받습니다.

제 7 과  
언제나 <대장>이 되 시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선생님께서는  
어려실 때부터 군사놀이를 좋아하시었습  
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전부 미  
제를 때려부시는 군사놀이를 자주 하시  
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 유치원에  
다니시던 어느날이었습니다.

운동장에서 놀고있던 어린이들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을 모시고 군사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은 때마다 친애하는 지도자  
선생님께서 <대장>이 되어주실것을 말씀  
했습니다.

그리하여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

<대장>이 되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전총>을  
차시고 <방안경>을 쓰셨습니다. 그리시  
고는 어린이들을 창하여 소태보멋구멍을  
내리셨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힘있는 구멍에  
따라 어린이들은 제법리 모여있습니다.

한 어린이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앞  
에 똑바로 서서 명령대로 모였다고 보고  
했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모이신  
어린이들을 둘러보시며 <전부일부>를 주  
셨습니다.

그리신 다음 돌격알으로 구멍을 내리시  
었습니다.

어린이들은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의  
명령에 따라 만세를 부르며 앞으로 달려  
나갔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선생님께서는 앞뒤를

☐

또한 매월 한 번씩 학급별로 '월 생활 총화' 라는 학습을 하는데, 이 시간에는 자신의 한 달 동안 생활을 스스로 비판하고, 다른 친구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는 활동 등을 합니다.

한번 배정받은 반은 바뀌지 않으며 급우들도 변함이 없습니다. 선생님도 1학년 때 학급을 맡으면 그 학급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 4년 동안 계속 맡게 됩니다.

〈북한의 인민학교 교육과정〉

번호	과목명	구분	주당 수업시간수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1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어린시절		1	1	1	1
2	경애하는 지도자 김정일장군님 어린시절		1	1	1	1
3	공산주의 투사 김정숙어머니 어린시절		1	1	1	1
4	공산주의 도덕		1	1	1	1
5	수 학		5	5	6	6
6	국 어		8	8	7	7
7	자 연		2	2	2	2
8	위 생		1	1	1	1
9	음 악		2	2	2	2
10	체 육		2	2	2	2
11	도 화		1	1	1	1
12	공 작		1	1	1	1

\* 북한 교육성의 과정안을 바탕으로 하고 이후 변화를 반영하여 작성

\* 1학기는 16주, 2학기는 18주

\* 여름·겨울방학 외에 3월말 1주일은 봄방학



## 생각해 보기

남북한 어린이들의 학교 생활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를까요?

## 10. 북한 어린이들의 과외 활동

인민학교 학생들은 방과 후에 정치 학습을 위한 총화 등을 하는 한편 교과목별로 '소조'라는 모임을 만들어 학급반실에서 집단으로 과목 학습을 합니다. 또한 생산 노동을 체험한다는 명분 아래 파지 및 고철 등을 수집하고, 소년림 가꾸기 등의 생산 노동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과외 활동은 혁명 인재의 양성과 노력 동원이 주목적입니다.

인민학교 학생들은 2학년 때 소년단에 입단하여 조직 생활을 해야 합니다. 소년단원은 만 7세가 되면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어 인민학교 2학년이면 자동으로 소년단에 입단하며, 만 13세까지 소년단 활동을 합니다. 여기서서는 주로 정치 사상 교양, 생산 노동, 생활 총화 등의 활동을 합니다. 생산 노동으로는 '좋은 일하기 운동'이라 하여 토끼 기르기, 파리 잡기, 소년단림 가꾸기, 각종 폐품 수집 등을 합니다.

또한 소년단 활동은 김일성·김정일의 혁명 사적지가 있는 백두산 답사를 가는데, '항일유격대식'으로 행군을 합니다. 어린이들은 여기에 참



소년단의 혁명유적지 답사 행군 모습

가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소년단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릴때부터 조직 생활을 통해 철저히 사상 교육을 하여 어른이 되어서도 북한 체제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민학교의 과외 활동 내용은 요일에 따라 다릅니다. 월요일에는 사상 학습, 화요일은 과외 체육, 수요일은 소조 활동, 목요일은 소년단의 날, 금요일은 대청소, 토요일은 주생활 총화와 같이 계획하여 진행하고 있고, 이러한 과외 활동이 모두 집단으로 이루어집니다.



### 생각해 보기

우리나라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을 조사해 보면 연예인이 대체로 많습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할까요?

북한어린이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을 조사해 보고 관련시켜 생각해 봅시다.



## 11. 북한 어린이들의 여가 활동

우리 어린이들은 여가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거나, 컴퓨터 게임을 하거나 또는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며 보냅니다. 북한 어린이들은 무엇을 하며 여가 시간을 보낼까요?

### (1) 일요일에는 교회나 절, 성당에 다닐까요?

우리 어린이들은 일요일이나 종교 행사가 있는 날이면 자유롭게 교회나 절 또는 성당 등에 가곤 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사실 종교의 자유가 없어서 종교에 관한 말도 잘 모릅니다. 북한에는 교회가 2개, 성당이 1개, 그리고 절이 60여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당은 외국 손님들이나 해외 행사를 위해 만든 것이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것은 아닙니다. 한편 천도교는 민족 종교라고 해서 그나마 활동이 있는 편입니다.



북한의 승려



봉수교회

특이한 것은 종교 활동은 금지하고 있지만 점을 보는 것과 같은 미신 활동은 아직 남아 있고 당국에서도 철저히 단속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2) 북한 어린이들도 TV를 즐겨보나요?



만화 영화 '소년 장수'의 한 장면

북한에는 조선중앙 TV·만수대 TV·교육문화 TV 등의 방송국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조선중앙 TV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북한은 외국의 주문을 받아 생산할 정도로 만화 영화를 만드는 기술이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인기 있는 프

로그램은 만화 영화인 '영리한 너구리', '소년 장수' 인데 어른들도 즐겨 본다고 합니다. '영리한 너구리'에서는 지혜로운 생활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며 교훈적인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소년 장수'는 고구려 소년의 슬기롭고 용감한 애국 활동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 만화 영화는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라는 곳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한편 평양에서만 볼 수 있는 '만수대 TV'에서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외국 만화 영화도 방영하는데 미국 디즈니 만화인 '톰과 제리'가 방영되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북한 어린이들은 저녁 때까지 이어지는 학교 생활이나 단체 활

동으로 개인 여가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TV를 보고 싶어도 칼라 TV는 고사하고 흑백 TV를 소유하고 있는 가정도 적기 때문에 TV를 보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3) 북한 어린이들도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나요?

우선 북한에는 컴퓨터 보급률이 매우 낮기 때문에 가정에서 개인용 컴퓨터를 가지고 게임을 한다는 것은 극소수의 특권층 가정의 어린이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게임 프로그램은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국가과학원 수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청개구리' 시리즈와 '드래곤'이 대표적인데, '드래곤'은 울타리 안을 달리고 있는 공룡을 쏘아 잡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평양의 소년 문화 궁전에는 게임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어린이들이 전자오락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어린이들이 충분히 즐길 정도는 아닙니다.



개성 청년 공원의 어린이 놀이 시설



전자오락실



생각해 보기

북한 만화 영화는 통일교육원 사이버통일교육센터([www.uniedu.go.kr](http://www.uniedu.go.kr))를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북한과 우리나라의 만화를 감상하고 그 느낌을 말해 봅시다.



# III

##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1.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2.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3.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 Ⅲ. 통일을 열어 나가는 길

우리 민족은 50년이 넘는 동안 남과 북으로 나뉘어 살아왔습니다. 그로 인해 한가족이 헤어져 살아야 했고, 같은 민족을 서로 죽이는 비참한 6·25전쟁도 경험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주인으로 살아갈 21세기는 분단된 반쪽의 나라가 아니라 평화와 사랑이 넘치는 통일된 조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나 통일의 길은 분단된 세월만큼이나 길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통일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임을 알고 굳은 통일 의지를 지녀야 할 것입니다.

#### 1. 다시는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대대로 화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들은 1950년에 일어난 6·25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않아 그 끔찍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겠지만, 할아버지·할머니들의 이야기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또한 텔레비전을 통해 세계 여러 나라의 전쟁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총탄과 포탄 속에 죽어 가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우리나라에 다시 전쟁이 일어나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것들이 6·25전쟁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파괴될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입니다. 자기 집이 파괴되고 부모·형제·친구가 죽을 수도 있으며, 살아

남는다고 해도 비참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전쟁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남과 북이 같은 동포임을 느끼며 화목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 2. 남북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돈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분단 상태를 유지하면 더 많은 노력과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은 상호 대치한 분단구조 때문에 적지 않은 군사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제발전과 복지증진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어린이들의 사고방식이 '반쪽짜리'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현장 체험학습을 간다고 할 때 학습 장소로 휴전



선 남쪽에만 한정하여 생각하는 것 등입니다.

그렇다면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선 막대한 국방비를 줄여 경제 발전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에는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더 많은 컴퓨터를 보급할 수 있고, 낡은 책·결상도 좋은 것으로 제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인민학교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세 많으신 이산가족의 한도 풀립니다. 지하 자원과 관광 자원도 효율적으로 개발하면 우리나라의 소득도 늘어납니다. 육로로 금강산·묘향산 등으로 소풍을 갈 수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에 가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기차를 타고 유럽도 갈 수 있습니다. 북한 학생들도 서울이나 제주도로 소풍을 올 수 있습니다. 정말 상상만 해도 신나는 일이 아닐까요?

그러므로 이제 남과 북은 지금부터 함께 살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나가야 합니다.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남과 북의 교류와 협력은 이를 위한 노력들입니다.

### 3. 우리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의 이익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원래 남북 분단은 미국과 소련이 세력 싸움을 하는 사이에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통일은 우리의 힘으로 이루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남북 정상 회담 때 북한에서 선물로 받은 풍산개

그러자면 서로 힘을 합쳐야 하며, 이해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통일을 이해하고 도와주도록 해야 하고, 우리는 통일이 당연한 것임을 열심히 알려야 합니다.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하나가 되는 날은 남북한의 우리 민족이 함께 흘리는 작은 땀방울 하나하나가 모여 만들어 내는 것이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통일은 꼭 평화적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모두가 망하는 전쟁에 의한 통일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평화적인 통일이 말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서로 다른 체제속에서 살면서 미워하는 마음들이 깊이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이것을 풀어 나가야 하는데, 현재 남과 북은 정상회담 후에 서로의 믿음을 쌓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생각해 보기

통일이 되면 여러분들은 북한 친구들에게 무슨 선물을 주고 싶은가요?  
또 어떤 선물을 받고 싶은가요? 이유도 말해 봅시다.



# IV

##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

1. 주인정신을 가져요
2. 강한 정신력을 키워요
3.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요
4. 더 넓은 세계를 내다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요



## IV. 신나는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어린이

통일된 나라의 모습을 상상해 보셨나요? 남과 북의 허리를 가로막고 있던 휴전선이 없어지고, 우리는 개성에 있는 태조왕건릉으로 현장학습을 갑니다. 북한 어린이들과 채팅을 하고, 가을이 되면 금강산으로 단풍 구경을 갑니다. 생각만 해도 신나는 미래입니다.

그러나 이런 미래는 준비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이룰 수 있는 꿈입니다. 이런 신나는 미래를 만드는, 통일을 준비하는 어린이들의 자세는 어떠한가요?

### 1. 주인정신을 가져요

힘들고 귀찮은 일은 다른 사람에게 미루지 말고 내가 맡아서 실천합시다.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통일도 내가 주인으로서 '나의 문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의 문제는 나 자신, 우리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세계 인류의 평화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 2. 강한 정신력을 키워요

요즘 일부 우리 어린이들 사이에는 자신이 마음먹은 일들을 쉽게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육 시간에 턱걸이를 하는 학생들을 보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나는 턱걸이를 하나도 못하니까' 하면서 포기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턱걸이에 온 힘을 쏟는 학생의 얼굴에서는 꼭 해내야겠다는 의지를 느낄 수 있고, 이를 바라보는 친구들도 최선을 다한 친구에게 박수를 보내고 응원을 보냅니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보다는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버릇을 들이는 것은 스스로 자신감을 잃게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 발전을 위해서도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강한 의지력을 키우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하기 위한 기본 자세입니다.

## 3.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요

사랑은 받을 때 행복할 수도 있지만, 받는 것보다는 베풀 때 그 기쁨이 몇 배 더 큽니다. 이것은 사랑을 주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부모님·형제자매·친구·주변의 이웃들을 서로 사랑하고 아껴줄 때 우리의 미래를 밝아지고 사회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차별 의식을 없애야 합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친구를 따돌리거나, 자기만 잘난 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은 북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지혜를 키우는 길이기도 합니다. 통일이 되면 우리는 북한 어린이들과 어울려 살아야 하는데, 그 어린이들에 대해 차별 의식을 가지면 제대로 된 통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 민족이고 한 형제이다'라고 느끼는 '통일의 마음'으로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가능한 것입니다.

#### 4. 더 넓은 세계를 내다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요

세계는 이제 '지구촌'이라 할 정도로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계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으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과학의 발달로 지구 어디든지 전화뿐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단 몇 초만에 얼굴도 잘 모르는 외국 친구들과 많은 양의 글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 친구들도 한국에 많이 오고, 우리도 다른 나라에 많이 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어린이들은 한반도 안에서만 만족하고 지낼 것이 아니라 넓은 세계를 보는 마음의

눈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즉 '마음의 세계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을 인종이나 종교 때문에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나라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통일이 되면 7천만의 우리 '한민족'은 드넓은 대륙으로 나갈 수 있고,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마주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민족의 힘을 세계 속에 본격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들은 더 큰 미래와 세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남과 북이 평화롭게 통일되면 우리 어린이들의 미래는 신나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 생각해 보기

통일을 위해 우리 어린이들이 실천해야 할 태도를 모아 '어린이 통일 헌장'을 만들어 봅시다. 그리고 통일된 한국에서 살아가는 자기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